



5면

역세권 혁신관광 소셜플랫폼 조성 '순항'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3년 7월 3일 월요일 (음 5월 16일) 제3296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새만금 내부 개발·기업 투자 '가속도'

투자진흥지구 지정 선포식

산업위기대응지역 종료 후
법인세 감면 혜택은 이어가

김관영 도지사 "동북아 경제
허브로 자리매김 하게 될 것"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공식
선포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 내부개발
은 물론 기업들의 투자행렬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군산 지스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박영기 새만금
개발위원장, 김임준 군산시장, 정성주 김
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이병호 한국
농어촌 공사 사장 강병재 새만금개발
공사 사장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
운데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선포
식이 열렸다.

선포식은 투자진흥지구 홍보영상 상
영, 경과보고, 국무총리 축사 및 전북
도지사의 격려사에 이어 새만금 투자
진흥지구 선포식 퍼포먼스의 순서로
진행됐다.

지난달 28일 지정된 새만금 투자진
흥지구는 올해 4월 4일 종료된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지난달 30일 군산 지스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박영기 새만금위원회의 민간위원장, 김규현 새만금개발위원장, 김임준 군산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이병호 한국농어촌 공사 사장, 강병재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선포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법인세 감면혜택을 이어갈 수 있는 제
도로, 새만금지역 기업유치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투자진흥지
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기업의 경
우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2년
간 50% 감면이 가능하다. 새만금 사업
의 시행자의 경우 10년간 공유수면 점
용·사용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진흥지구의 핵심인 투자진흥지
구 지정과 법인세 감면을 위한 새만금
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20년 발의된 이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전북도와 새

만금개발청, 지역 국회의원들의 끈질
긴 노력으로 지난해 12월 국적으로 의
결됨에 따라 큰 고비를 넘겼다.

이번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매립이
완료된 새만금산단 1·2·5·6 공구를
대상으로 지정이 됐다.

또 새만금 전지역(군산 김제 부안)
을 대상으로 지정이 가능해 향후 새만
금산단 외의 지역에도 추가 지정이 가
능한 상황이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절차는 이번처럼
새만금개발청에서 직권으로 지정하거
나, 투자자가 요청해 지정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적용 기준의
경우 기존 제주, 광주(관광·문화중
심)투자진흥지구 대비 대상업종 수를
늘리고, 투자요건에 '상시근로자수'도
포함으로써 기업 유치가 일자리 창출
로 이어지도록 했다.

새만금은 현재 이차전지 기업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
다. 남북도로,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신항만 국제공항 등 기반시설 구축,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 준공 등
새만금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번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라는 날개를 달게 돼 새만금이 더욱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
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새만금투자
진흥지구 지정은 이차전지 기업 등의
투자리치를 가속화하고, 더욱 다양한
기업들이 새만금에 터를 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북 새만금이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 경제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며, "전북도민의 희망이자
대한민국의 꿈인 새만금이 결실을 맺
기 위해 이번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
정 선포식을 계기로 유관기관 모두가
더욱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고 말했
다. /김재훈 기자



작은빨간집모기. (사진=경북도청 제공)

일본뇌염 매개모기

전북서 올해 첫 발견

기후변화 거점센터

감시 사업 수행 중에 발견

지난해보다 3주 빨라

도 보건원, "예방접종 권고

피부노출 최소화 주의" 당부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효주
이하 연구원)은 원광보건대학교와 협
업하는 기후변화 거점센터 감시 사업
수행 중 지난달 28일 일본뇌염 매개모
기인 '작은빨간집모기'를 올해 첫 발
견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연구원은 이는 지난해보다 3주
가량 빨리 발견된 것이라며 주의가 필
요하다고 당부했다.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
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모기로, 남부
지역 중심으로 6월부터 증가하기 시작
해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찰된다.

일본뇌염에 걸리면 대부분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바이러스가 뇌로 퍼지면서 고열, 발
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
각한 증상이 나타나면 이 중
20~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만
큼 예후가 나쁘다. 이 때문에 영·유
아 및 일본뇌염 고위험군에는 예방접
종을 권장한다.

국내에서는 제주와 부산에서 일본뇌
염 매개 모기가 확인돼 지난 3월 23일
질병관리청이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
령했다.

김효주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일
본뇌염은 백신을 통해 예방이 가능
하므로 예방접종할 것을 권고한다"
며, "매개모기에 의해 감염되는 질
환인 만큼 모기 기피제 사용, 피부노
출 최소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
부했다. /김재훈 기자

'대화형 AI로 더 특별한 전북 구현'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도민경제·농생명·관광

새만금·도민행복 등 5대 도정 분야별 활용 방안 제안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최근
주목을 받는 대화형 AI에 대한 지자
체별 활용 사례, 정부정책 방향 등을
검토하고, 전북도정에 활용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대화형
AI 시대, 스마트행정 구현을 위한 전
북도 활용 방향'이라는 이슈브리핑
을 발간하고, 5대 도정 분야별 대화
형AI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대화형AI(인공지능)는 2022년 오픈
AI(OpenAI)사 ChatGPT를 출시시킨
이후 구글, 카카오, 네이버 등 자체
적 모델을 개발, 출시가 진행 중이
다. 특히 ChatGPT의 놀라운 성능이
확인됨에 따라 최근 기업 정부, 지
자체 등에서는 그 활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이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 경기도 경북
도 등은 민원 해결과 정책개발, 관광
과 농업 등에 대화형 AI를 행정에서
활용하는 사례를 분석했다. 따라 전
북에서도 활용법을 강구해 더 신속
정확한 행정, 더 편리한 대민서비스
를 구현하기 위해 전북의 5대 도정
분야별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도민경제 분야에서는 기업유
치와 기업지원에 대화형 AI를 활용
하는 방안이다. 도, 시군별 입주환경
과 기업유치 제도, 그간 기업유치 인
센티브 제공 사례 등을 기업에 맞춤
형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해외 기업에는 번역 기능을
제공해 투자 문의의 편의성을 제고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전북도

가 운영 중인 '1기업1 공무원 제도'
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조수
단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농생명 분야에서는 농어촌 보조금
상담, 신청 등에 대화형 AI를 활용하
여 농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모
델, 작물의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작물 선정, 유통 경로 등을
농어민에게 제공하는 모델 등이 제
안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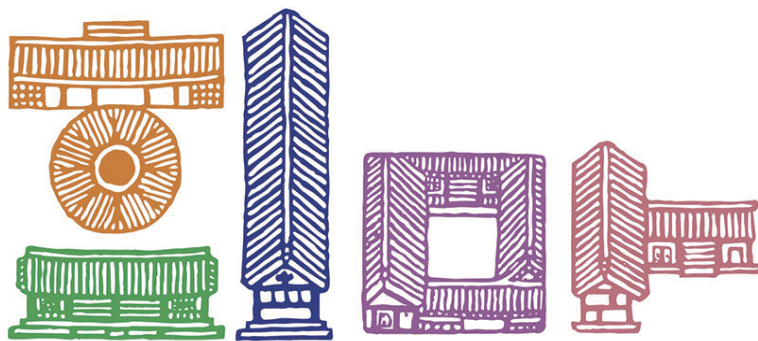
관광에서는 MZ세대가 선호하는 짧
은 영상에 대화형 AI의 콘텐츠를 결
합해 전북민의 관광콘텐츠를 생성하

고, 미디어 콘텐츠 내 노출 빈도를
강화하여 전북의 관광 매력도를 높
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새만금도약·균형발전 분야는 국토
부가 진행 중인 대화형 AI 활용 디
지털 특원국토 시범사업'에 도내 시
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국
국토정보공사와 시군별 맞춤형 모
델 개발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끝으로, 도민행복 분야에서는 교육
과 지역의 협치를 위해 도내 지,
산, 학, 연 DB를 구축, 학습시켜 최
적의 협력 매칭을 지원하는 모델,
전북도가 추진하는 예코캠핑 삼천
리길 구축과 연계한 산림자원 연계
형 치유프로그램 AI 가이드 등도
제안됐다. /김재훈 기자

도민과 의회가 함께 만드는 내일,



제12대 전라북도의회 개원 1년

입니다

의회 전라북도의회